

떠오르기

메마르게 흐르는 - 바람이 불어오는  
당신의 모양도 흐트러지는  
모래의 품에서. 당신에 대해 생각하기.

우리는 이러한 심상이던가?

\*

마치 공기를 그을리는  
폭풍우처럼

평화로이 자리를 지키는  
당신은 해안 되고  
도시는 부서지고

나른한 심상 그리고  
더이상 그곳에 없는  
목적자, 당신

그러자 이번엔 넘쳐나는 목소리들  
어찌된 일인가?

\*

일곱 가지 바람 불어  
다시 이어짐과 마주하고  
덧없고 불안정하며, 견디기 힘든  
가능성의 실바람  
산이 되려하는 바다와 같이  
침식과 춤추는 산과 같이

가라앉지 못한 티끌 -  
움거진다는 것의 알레고리  
사막은 그들에 대한 우리의 천진한 믿음을  
다시 일컬어주기보다는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당신은 길을 잃었고  
그저 그것이 다 일 뿐

모래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것  
입자 속의 (목)소리가  
저버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그러나 변화 없이 이겨내는 수도 있음을  
이 모든 곳이 아니라면  
당신은 어디에서 숨을 쉴 수 있겠는가?

요타 몸바사, 「침잠한다는 것은」, 2022

an elevation 푸르스름이. 녹은 그늘과,

바람이 불어오는  
나른한 풍경들

thinking about you, in the sand,  
dry and fluid the wind blowing  
you shape shifting

모래 속에서, 당신에 대해 생각해,  
- 물이

are we these images?  
우리는 이러한 심상인가?  
아니

당신의 문상도 흐트러는  
모래에서

like the smog of  
a storm

마치 폭풍우처럼  
공기를 그을리는

the shore is you  
standing peacefully  
as the city breaks

평화로이 자리를 지키는  
당신은 해안의 되고 / 도시는 부서지고  
모래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것

나른한 심상 그리고  
더이상 그곳에 없는  
목적자, 당신

the tired imaging and  
you, the witness -  
no longer unattended

too many voices this time  
how come?

이제 넘쳐나는 목소리들  
어찌된 일인가?

일곱 가지 바람

set the seven winds  
to face the reconnection  
the breeze of possibility  
feeling, unstable, unbearable  
like an ocean who becomes a mountain  
like a mountain dancing with erosion

이제 넘쳐나는 목소리들  
어찌된 일인가?

이제 넘쳐나는 목소리들  
어찌된 일인가?

가능성의 실바람 / 산과 같이

덧없고 불안정하며, 견디기 힘든

가능성의 실바람

산이 되려하는 바다와 같이

침식과

춤추는 산과 같이

가라앉지 못한 티끌 -

the dust unsettled -  
allegory of displacement  
deserts know better  
that to reassure naive illusions of belonging  
you are lost  
and that a detail

가라앉지 못한 티끌 -  
움거진다는 것의 알레고리

사막은 그들에 대한 우리의 천진한 믿음을

다시 일컬어주기보다는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당신은 길을 잃었고  
그저 그것이 다 일 뿐

시안을 알았더  
더 많은 것들.

sand will never cease to surround you  
as sound within the particles (voices)  
claim it wouldn't be possible not to surrender  
but defeat without conversion is still a promise  
where would you live  
if not everywhere?

모래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것

입자 속의 (목)소리가

저버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그러나 변화 없이 이겨내는 수도 있음을

이 모든 곳이 아니라면

당신은 어디에서 숨을 쉴 수 있겠는가?

그들에게 대한

당신을 잃은 입자의  
광명을 나타냈다.

Jota Mombasa, sinking could be, 2022

- 요타 몸바사

침잠한다는 것은, 2022

음기

Translating their poem as a way of transcribing their work, *sinking could be* (2022), performed at blue aula of de Appel as part of episode 1 in an exhibition entitled *super feelings*, was a formulation of being lost yet conscious. The atmosphere of the day – as I recall, was funneling down to the ascended dunes on the ground as if there was another depth of gulf underneath. The whispers of silence from both, speakers and the audience composed an additional sonic layer – not to mention the attending of stormy rain at the right moment. To hold onto this sensorial experience as a viewer and a reader of their work, I decided to tow these verbally reproduced words into another bag of language. Anchoring down their poem, word by word, has enabled me to trans-load the weight of their meanings and the sense of sinking from that day. Trails of myself bathing in a fluid way of words rest in here, claiming to sink down as mingled and saturated leftovers derived from residues of *sinking could be*.

#### 일러두기

이 글은 드 아펠의 푸른 강당에서 이루어진 전시 «super feelings»의 첫 번째 에피소드 'Jota Mombaça – sinking could be'에 대한 목격자 진술서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 Miji Lee

As a visual thinker and a researcher, she reads, writes, and observes with her interest in translated languages, unfamiliar relationships, and entangled contexts. Her focus is on the reciprocity in art and dialogues generated by the transferring and crossing between different stratum.

#### 이미지

시각적으로 사고하는 기획자. 낯선 관계와 뒤얽힌 맥락, 번역된 언어에 관심을 가지며 읽고 쓰고 관찰한다. 서로 다른 지층의 이동과 횡단(trans/cross)으로 인해 생성되는 대화와 예술에서의 호혜성에 주목하고 있다.